



조갑용. 작은형 조경용. 큰형 조상용. 아버지 조만석 (1951년 겨울)

조감용 영남 성주굿


CHO GAP YONG YÖNGNAM SÖNGJU GUT

- 태평소와 사물 -

-TAEPYČNGSO & SAMUL-

- | | |
|------------|-------|
| 1. 성주풀이 | 41:07 |
| 2. 태평소와 사물 | 9:19 |

소리, 태평소, 팽과리 / 조감용
장구 / 이부산
북, 팽과리 / 장구석
징 / 백애란

-
- 프로듀서 / 양정환  / (P&C) Yang Chŏng-whan (Director)
 - 녹음 / 1999. 7. 24 태평스튜디오
 - 해설 / 양종승 (인속학박사 국립민속박물관 전문위원)
 - 제조 / 1999. 9. JIGU Seoul, Korea
 - 기획 · 제작 / 조감용 사물놀이전수소

■ 조갑용의 예술세계

조갑용의 영남성주굿과 태평소 시나위

조갑용은 1953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6세때부터 부신 대신동 농악대 상쇠였던 부친으로부터 풍물을 익히기 시작하였다. 이후 조성현선생에게서 설장고를 배우고 유삼용선생에게는 비나리의 상쇠를 공부하였다. 19세부터 전라도 우도 농악의 명인 백남윤선생으로부터 소고와 열 두발 상모를 익혔으며 한편으로 이태용선생에게서 영남성주굿을 학습하였다. 조갑용은 천성의 끼를 바탕으로 옛 스승들로부터 물려받은 예능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1985년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인 개인상을 받으면서 그의 탁월함을 세상에 내놓았다. 四十 星霜 외길인생에서 만들어진 조갑용의 팽과리, 장고, 소고, 성주풀이, 태평소 소리는 분명 '꾼의 소리'로 만들어져 있음이 분명하다.

조갑용은 유삼용제와 이태용제 성주풀이를 가지고 있다. 두 제 모두가 영남계이지만 각각의 사설은 그 내용에 있어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음악적인 맛도 달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성주굿은 이태용의 제로써 그 내용은 집임자인 성주신을 모시고 가족성원의 재수발원을 축원하는 것이다. 즉 풍물해가 이집 저집을 돌아다니면서 걸림을 하는데 이때에 고사덕담의 형식으로 불러진다.

조갑용의 영남성주굿은 영남의 독특한 소리 목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그 맛은 곱사아 감칠맛이 배어있다. 또한 소리의 흐름은 빠르면서도 조절되고 흥겨우면서도 억제되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을 돋구어 내게 만드는 묘미가 있다. 비나리와 함께 발표되는 태평소 시나위는 사물악기에 맞춰 이루어지는데 그 장단으로는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그리고 뒷살풀이로 짜여져 있다. 태평소 시나위의 맛은 전라도의 기품있는 장중함에 있으며 동시에 흥겹고 경쾌함이 넘친다.

양 종 승 (민속학박사, 국립민속박물관 전문위원)

성주풀이

사마세계 계벽후에 태고천지 돌아올 때
유유피창 하늘천자는 자방자시 열려있고
천지오행 따지자는 축방축시에 벌어져서
태고라 천황시는 목덕으로 왕은 할 때
우리 인생 나타날 때 임방임씨로 나타나고
우리 중생 집이 없어 방구틈을 집을 삼아
나무열매 밥을 삼고 나무잎을 옷을 삼아
임동실한 실한풍에 눈비맞고 살아갈때
신농씨가 나타나서 남산에다 밭을 갈고
농사짓는 법을 내어 농사짓게 힘을 쓰고
여화씨는 나타나서 길삼질을 가르쳐서
좋은 본목 많이 짜서 옷을 지어 입게 하고
수잔씨가 나타나서 불을 빌려 화식할 때
삼시세때 밥을 지어 처음으로 먹게 하고
헌헌씨는 나타나서 억조창생 구제할 때
모진병이 몸에 들어 주야육시 앓는 사람
대상맥초 풀을 모아 백가지 풀을 맛을 보고
만병통치약을 지어 모진 병도 낫게 하고
성주님이 나타나서 하두 낙서 둘러보고
무주공산 터를 닦아 초옥삼간 집을 지어
남혼여치법을 내어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들낳고 딸을 낳아 모진 눈비 아니맞고

분벽사창 좋은 방에 아들딸이 장성하니
장하도다 장하도다 성주공덕이 장하도다
억조창생 만민들이 성주님을 잘모시소

성주님을 모실라하니 성주근본 알아야지
성주 부친 청룡대왕 성주모친 계화부인
삼십 영광 지나가고 사십영광 돌아와도
부부간에 자식없어 계화부인 탄식할 때
수미신 팔봉대에 도사님이 내려서서
계화부인 문전앞에 목탁치며 공양빌때
계화부인 바라보니 그 중태도 범상하여
버선발로 뛰어내려중아 중아 들어봐라
우리부부 자식없어 탄식끝에 눈물이라
도사님 하신 말씀 신공없는 자식노으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신든절 끊어질까
우리절에 부처님은 영험이 많은 고로
백일정성 기도하면 귀한 태자 볼 터이요
그 말씀을 하시드니 오고간데 흔적없다
계화부인 거동보소 수미산을 올라갈 때
높은산에 정기 빌고 낮은 산에 기도하고
수화금목 탑을 모아 월천강에 다리놓고
수미산을 올라가서 대법당을 중수하니

범당안에 아미타불 연꽃이 만발하다
금불부처가 도급하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온 집안에 향기되고 그달부터 태기있어
오십영광 놓은 아들 그 아들 이름이 성주로다

천년 성주 만년 성주 수수 만대 내려온 성주
초가성주 와가성주 성주 근본이 어데매요
경상도 안동명 제비중천이 본이든가
제비원이 본 아니다 강남원이 본이로세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 쓸처한쌍 물어다가
뒗동산에 높이떠서 삼천리 강산에뿌렸드니
밤이되면 이슬 맞고 낮이 되면 태양받아
그솔이 점점 자라나서 타박솔이 되었구나
타박솔이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자라나서 도리기둥 되었구나
둥글박자 박대목아 버들유자 유대목아
서른 세가지 연장망태 원어깨 둘러매고
뒗동산 치치달라 한등넙고 두등넙어
나무한주 잡아보니 동쪽으로 벌은 가지
황새독새 툽을 싸서 이주야 부정타 못쓰겠다
또 한등 넙어서서 나무한주 잡아보니
서쪽으로 벌은 가지 까막까치 집을 지어
그나무도 못쓰겠다 삼세등 거듭넙어
아름다운 금수강산 강산 근본 들어보소

* 양반근주 밤나무면 상림덕사 배나무라
무상의 신사 신사무요 미인단복 박달나무
말꾼주면 마치나무 몸색이 좋다 오동나무
잎이 넓은 노갈나무 잎이 좁은 고사리나무
평피졌다 떡갈나무 물색이 좋다 단풍나무
부부연분에 흘잎나무 원양금침 잣나무라
세월이 장차 옷나무요 유각가던 석류나무
둔갑장생 무궁화나무 천지오행 떡나무라
산중의 귀물은 다래나무 백설강산 으름나무
근은 좋다 황장목아 석달열흘 백일홍아
여포창날 음나무요 포위한식 칠기나무
유부녀 절개 사철나무 황녀눈물에 소산반죽
백팔염주 보리수나무 재앙년분 살구나무
시냇가에 유목나무 여자팔자 버드나무
인생유수 감나무요 연세많은 고목나무
춘향의 홍별 물푸리나무뚝머리 단장 동백나무
거짓말 잘해도 참나무요 물에 두둥둥 뚝나무라
십리절반에 오리나무 타도타관 고향나무
열녀절개 대나무요 군자절개는 소나무라
허리붉은 늙은 장송 가지가지 보배나무
삼정승 벌은 가지 육관서 꽃이 피네

군자절개 푸른청송 그 나무기 왕목이니
성주님 붓기둥 분명하니 대목 역시 거둥보소

갓은 벗어 술평이 걸고 옷은 벗어 등짐하고
그나무에 톱을 걸어 밀어라 땀기라 톱질이야
나무한주 넘어간다 그나무기 넘는 소리
하늘에서 천둥하고 땅이 울려 진동할 때
화살같이 곧은 먹줄 굽은 나무 먹줄 놓고
옥왕의 옥도끼와 금옥금 금도끼를
용왕님전 분부받고 상제전에 빌리다가
굽은 나무 등을 치고 곧은 나무 배를 다듬어
도리상량 보기등을 공단같이 다듬어서
삼십명 역꾼들이 이 집나무 운송할 때
서방 남방 다 가려내고 나무 운송 야단이다
이집에라 대주 양반 이 집터를 잡을라고
삼통천문 하달길에 무학도사를 모시다가
이산 저산 지리밧아 명산대천에 찾아가니
청룡황용 홍국이요 우봉산악이 되었으니
천지현황 생긴후에 이집터가 대명지라

산신령전 기도하고 오토지신을 지만후에
초산의 목동들이 용의 머리에 터를 닦아
청룡황용 뒷주름잡고 남산 봉학이 안을 받아
호박주추 유리기둥 산호도리 앞을 엮고
초생반달 빌리다가 반달들보 없어 놓고
이집에라 대주양반 상량제만 모실라고
구룡수라 좋은 물에 삼일정성 기도하고

천장 지장 장을 보아 만반 진수 차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주시지준 비나이다
부모님전 존체빌고 자공성불 비는 말씀
제갈공명 본을 받아 훌륭하게 의시대며
하도 용마 높이 타고 한양서울 올라가서
유리천상 칠부궁전에 금상님전 용상앞에
용연에다 먹을 갈아 산호필반 정을 풀어
왕희지의 필법으로 일필휘지 글을 지어
일천에다 선장하여 금상님전 올렸드니
칠부금상 높이 앉아 천하영웅 언고보니
황용강 물길이 굽이치고 하도용마 넘급친다

소년등과 금제주니 청계황계 바쳐들고
삼천궁녀 둘러서고 천하지후 모아서서
평양감사 도입으로 대원수를 마련하니
거리거리 송덕소리 장안만호 진동한다
만대유진 많이 빌고 상량제만 모신후에
청실홍실 줄을 메고 열두지 석가래걸고
소산반죽 좋은대로 영금영금 산자 엮고
오색토로 갈매쳐서 초옥삼간 집을 지어
동두칠성 들자귀에 북두칠성 저문고리
유성청계 좋은나무 분남창문 달아놓고
만리장성 울을하고 소실대문 갖기달아
단층흑백 찬란한집 내귀에다 평경달고

오초동남 좋은바람 핑경소리 듣기좋다

이집지는 삼년만에 성주님이 없을소나
모시오자 모시오자 성주님을 모실라고
한송정술을 배어 반야용성 배를 모아
용인포로 돛을 달아 어기여차 떠나는 배
앞이 물에 저사공아 뒷고을에도 도사공아
강풍에는 노를 짓고 순풍에는 돛을 달아
황토섬을 뚫떠나서 만경장과 당도하니
정강유수 맑은 물이 삼천리 강산 둘러있고
저봉넘어 뜬구름이 성주님을 둘러쌓다
앞강을 바라보니 배삼척이 떠서 온다
앞의 배를 살펴보니 연화봉으로 배를 모아
청용황용 그림놓고 무지개로 단청하고
구품연화 찬란한 배 조왕님이 타신배라
다음배를 살펴보니 팔선녀가 노를 짓고
제천음악 가진 풍류 천동천녀 춤을 추며
오색광명 두른 배는 성주님이 타신배요
마지막 배를 둘러보니 인왕보살 노를 짓고
팔만팔천 동자보살 칠성가사 지어입고
염불소리 진동한 배 시주님이 타신 배라
모셔왔네 모셔왔네 성주시준 모셔왔네
청사초롱 걸어치고 이방 경치 둘러보니
연하지로 도배하고 유리장판 만다지에

천화 명화 좋은 그림 좌우에다 걸었는데

위수에 강태공은 문왕을 만날라고
곧은 뉘시 물에 넣고 언덕밑에 앉아서로
꾸벅꾸벅 자부는 모양 역역하게 그려있고
한종실 유헌숙은 와룡선생 만날라고
남향초당 풍설중에 걸음좋다 적토마상
지향없이 가는 모양 역역이도 그려있고
시중천자 이적선은 채석강의 명월하에
포도주를 취케먹고 물밑에 비친 달은
섬섬옥수 잡는 모양 역역하게 그려있고
산층처사 두노인과 상상시호 넷노인이
바둑판을 앞에놓고 흑기백기 두시는데
뒤에 앉은 지노인이 훈수를 하시다가
무한당코나앉는 모양 역역하게 그려있고
일궁명화 좋은 국화 봄나비를 안볼라고
삼강시에 숨어피니 숨어피는 구월국화
화공이 그린 좋은 그림 역역하게 그려있다
분벽사창 좋은 방에 움무병풍 둘러치고
갑자을축 육십일에 생기복덕 날을 받아
시주님은 방으로 모시고 성주님은 분 위에
모시지

장생불사 만년주요 삼신신 불로초와

마구선녀 국화주요 한무세라 이슬주와
팔선녀의 신선주요 옥단춘에 기강주며
남산에는 봉회짚에 북해에는 오리탕을
옥판에다 잔득고와 앵무잔에 술을 부어
산호핀 좋은 판에 차례차례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주시준 비나이다
나라에는 충신빌고 부모님께 효자빌고
형제간에 우애빌고 백년부부 화목빌고
단명지 수명빌고 무자인은 생남빌고
삼신제왕 공덕으로 이 집에라 대주 양반
오초동남 깊은 밤에 대몽꿈을 꾸고보니
그달부터 태기있어 동자제왕 좌정하고
오장육보 간담지레 마련하시던 도술제왕
사대육신 뼈마디를 마련하시던 거해제왕
면목두상 뒤꼭지를 마련하시던 금부제왕
남녀간을 분별하여 마련하시던 태산제왕
명과 복과 시주팔자 마련하시던 칠성제왕
머리바지 물을 잡아 탄생시키던 제석제왕
군자숙녀 낱거들랑 수복록을 점지할 때
석순이 복을 점지하고 삼천갑자 명을 주소
군자호걸 장성커든 나라에는 충신되고
부모님전 효성있고 경상 감사 급제주소
이집에라 가모양반 요조숙녀 낱거들랑
경주부인 마련하고 열녀 춘향 점지하소

반달같은 요조숙녀 온달같이 장성커든
삼정승 옥판서 구대진사 좋은 가문
천생연분 지하배필 만복으로 인연맺고
검은 머리 백발연분 칠보단장 곱게하고
소산반죽 청댓잎에 청실홍실 걸어놓고
열두쪽 채할필에 군자숙녀 마구서서
꽃본나무 물본기러기 원앙록수 부부되어
부모님전 효성있고 가장에게 열녀되소
성주님의 은덕으로 이집에라 대주양반
말소리 향내나고 걸음걸이꽃만피소
천지풍하 막아내고 지하풍하도 막아내소
손재풍제 막아내고 관재구슬도 막아내소
일년하고 열두달 과련하고 열석달에
삼백하고 육십일 오늘같이도 점지하소
잡귀잡신 물러서고 만복은 이리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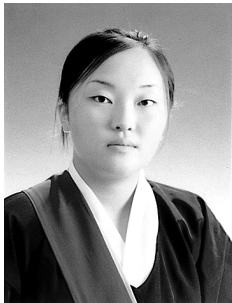
이 부 산 (장고)

- 인간문화제 제11회 문백윤선생님께 사사
- 제1회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 연기상 수상
- 제14회 전국 농악대회 농악부 특기상 수상
- 제15회 전국 민속예술제(삼천포농악 문화공보부상 수상)
- 제17회 전국 민속예술제(삼천포농악 문화공보부상 수상)
- 전라예술제 대통령상 수상
- 프랑스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 참가 대상 수상
- 86아시안게임, 88동계올림픽, 98나가노올림픽 공연
- 88장애지 올림픽음악 및 폐회식 공연
- 대통령 취임식 공연
- 200여 차례의 해외 순회공연 및 한국대표 참가
- 다수의 주요 국내 공연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부산시지부 농악분과 위원장 역임
- 現 중요무형문화재 삼천포 농악 전수교육조교
- 경기 사물놀이패 부단장



장 구 석 (북, 팽가리)

- 충남 논산출생
- 제1회 전국 초.중.고 농악 경연대회(국무총리상)
- 송순갑 선생님(충청, 경기)께 사사
- 정인삼 선생님께 호남 우도 사사
- 전주 전국 농악 경연대회(대통령상)
- 한국 관광 홍보단(미국, 일본, 캐나다 등) 순회
- 93 대전 엑스포 개.폐회식 공연
- L.A 한인 타운 10주년 기념 공연
- 94 제6회 사물 겨루기 장원(대통령상)
- 호주 아드레이드 민속 페스티벌 참가
- 전주 대사습 농악부 장원(2회)
- 98 경주 문화 엑스포 참가 등 다수
- 현 경기사물놀이패 총무



백 애 란 (징)

- 국악예고 재학
- 1998.10.10. 제16회 전국국악대제전 최우수상 수상
(교육부장관상)



조갑용

- 1972 부산 청구고등학교 졸업
- 1989년 명지실업전문대학 졸업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수료
- 1969 조성현 선생 설장고 사사
- 1970 유삼용 선생 성구풀이 · 상쇠 사사
- 1972 백남윤 선생 농악 소고 · 열두발 상모 사사
- 1988 박중선 선생 아쟁 사사
- 1989 서용석 선생 태평소 사사

- 1976 진주 12차 농악 보존회입회
- 1985 전국 농악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 1985 전국국악 경연대회 문화공보부 장관상
- 1987 국립국악원 입단
- 1988 세계민속예술축제 참가
- 1988 서울올림픽 공연 참가
- 1989 대한민국 국악제 참가
- 1992~94 원주전문대학 국악과 강사 역임
- 1992 독일, 프랑스 세계 전통 예술제 참가
- 1993~94 KBS 국악 경연대회 타악부 심사위원
- 1993~98 전국 국악 대제전 타악부 심사위원
- 1994 중요 무형 문화제 제11-가호

진주 삼천포 농악 전수 교육 조교 선정

- 1994~96 중국 연변 예술단 및 사범학교 강사 파견
- 1987~현재 문화사절단 세계 60여개국 순회 공연
- 1998 전 국립국악원 사물놀이 수석
- 1999 제24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심사위원

- 현재 경기 도립 국악단 지도위원
조갑용 사물놀이 전수소장
목원대, 용인대, 수원대 출강
경기사물놀이패 단장

